

#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쟁점

### 전남도·여수시·조직위 추진상황 보고회...핵심 콘텐츠 공유 관람객 눈높이 맞춘 아이디어 수렴 시민과 발전방향 논의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6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핵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보고회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 조직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주)YC-TEC 회장 등을 비롯해 조직위 이사, 사회단체, 기업, 학계, 문화·예술계 등 주요 인사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사회단체, 경제, 문화계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초청해 핵심 콘텐츠 공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섬박람회를 인공지능(AI) 기술과 섬별 문화·역사가 담긴 전시와 연출로 기획해 MZ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주요 보고 내용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상황, 전시·행사 계획, 10대 핵심 콘텐츠 세부 추진 방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수행사장이진도지구에서 경도를 연결하는 1.3km 구간에서의 도심항공교통(UAM) 시연과 금오도와 여지만을 잇는 위그선을 활용한 섬투어 등 미래 섬 접근 수단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과 함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섬박람회 성공 여부는 관람객 만족도에 달려 있는 만큼 관람객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여수 돌산읍 진모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남면 금오도, 화정면 개도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30개 국가 300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치 목표에 주재관, 섬의 미래·문화·생태를 보여주는 부재관, 공동관, 해상교량박물관 등 상설 전시관을 운영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답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관광공사 '직원 직급 통합' 놓고 노사 갈등

### 노조 "소통없는 인사 독단" 강압적 경영 중단 촉구 사측 "다양한 채널로 소통...지역 관광산업 안정화"

광주관광공사가 직원 직급 통합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관광공사 노조는 1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은 지난 6일 기술직으로 강제적 직제 축소와 직급 통합을 전 직원에 선포했다"며 "폭압적 인사 전횡과 조직의 강압적 통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올해 초 상위직급 T/O 축소와 일방적인 직급 통합을 강

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내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미화와 경비 업무는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업무임에도 정규직 충원이 아닌 용역직 대체로 공공기관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규직 감축 및 용역 대체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노노 갈등을 조래하는 일

방적인 직급 통합을 중단하고 투명한 고공정한 직급 승진 인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장은 조직 통제와 권위 유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광주의 '골렘 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기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조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조직 내 신뢰를 회복하고 광주 관광산업 발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며 "향후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추가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했다.

이에 대해 광주관광공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 관광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광공사는 또 "노조와 내부적인 문제는 빠르게 소통해 조율하겠다"며 "노조와 지난 1년 간 노사협의회, 직접 면담 등 총 45회 대면 면담과 총 76회의 비대면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왔고 노조의 주장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광공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된 조직이기에 어느 쪽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 제 기능하도록 공무원 역할 충실”

### 김지사 “대통령 체포 비극적인 일...헌정질서 바로잡아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실·국장 회의 석상에서 사상 초유의 헌정 대통령 체포에 비극적인 일이라 평가하며 “공무원들이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손

편지를 보니 태극기부대와 상황 인식이 같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공무원들도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 道, 돌봄 정책 확대...양육 부담 완화

### 손주 돌봄·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등 본격화

전남도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돌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돌봄 정책은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굴

한 역점 시책이다. 양육 부담 완화와 가족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손주 돌봄 지원사업은 부모가 경제 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는 제도다.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돌봄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는 부모의 야간 경제 활동과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형 24시 돌봄어린이집' 2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생후 6개월부터 8개월 이하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아동 330여명에게 매일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올해 처음 도입된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돌봄정책을 지속 발굴해 저출생 문제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전남도 공직자, 참사 피해지원 모금

### 일주일간 5천100만원...유가족 긴급 생계지원비 등 활용

전남도는 1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도 공직자가 지난 9일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1주일간 5천1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에 한 달 동안 모인 이웃돕기 성금과 비슷한 규모다.

특별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누구나 자발적으로 특

별모금 전용계좌를 통해 성금할 수 있다.

모인 성금은 유가족 긴급 생계지원비, 유가족 위로금, 긴급 돌봄비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유가족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 10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1대1 전달 공무원 지정·운영, 의료서비스, 긴급돌봄 등 유가족 지원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